

현대 중국의 전략문화와 전쟁수행방식 : 전통적 전략문화와의 연속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朴 昌 熙**

1. 서 론
2. 중국의 전략문화 논쟁 : 비판적 고찰
3. 현대 중국 전략문화의 기원
4. 중월전쟁과 현대 중국의 전쟁수행
5. 결 론 : 현대 중국 전략문화의 특성

1. 서 론

한 국가의 전략문화는 일반적으로 고유하고 단일하며 단기간 내 변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문화 연구는 논의하는 수준(level), 영역(area), 그리고 시대(period)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 우선 분석수준 면에서 전략문화 연구는 사상적, 정치적, 군사전략적,

작전적, 그리고 기술적 수준에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각 연구는 전쟁 또는 군사력 사용에 대한 집단의 정체성, 전쟁관, 군사교리, 방어전략, 군사력 건설, 전쟁수행, 핵 전략, 조직문화 등 서로 다른 영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략문화 연구는 대부분 한 국가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연구목적에 따라 특정 시기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모든 연구를 '전략문화'라는 공통된 용어로 포장하고 있으며, 기실 서로 다른 언어와 의미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

동서양 전략문화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학자들은 서로 다른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영역과 시대를 대상으로 논의하고 있다. 가령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로 대표되는 서구의 전략문화와 손자(孫子)로 대표되는 중국의 전략문화를 비교하는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클라우제비츠의 경우 유혈적인 전투에 의한 전쟁의 승리를 주장하는 반면 손자는 부전승(不戰勝)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동양과 서양의 전략은 정반대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²⁾ 그러나 두 전략사상가는 논의하는 수준과 영역이 다를 뿐 주장하는 본질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 클라우제

1) 부스(Ken Booth)는 "한 국가의 전통, 가치 태도, 행동양식, 습관, 성취 및 환경에 적응하고 무력의 사용이나 위협과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넓은 의미에서 이를 정의한다. 반면 클레인(Yitzhak Klein)은 "전쟁의 정치적 목적 및 이의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 및 작전방법과 관련하여 군 조직이 갖고 있는 태도와 신념의 덩어리"라고 함으로써 보다 좁은 의미로 정의한다. 반면 파커(Geoffrey Parker)는 "문화란 작전상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고 지휘와 통제, 통신과 정보, 그리고 전략적 비전이 전략문화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로렌드 손드하우스, 이내주 역, 『전략문화와 세계 각국의 전쟁수행 방식』(화랑대연구소, 2007), pp. 12-32.

2) 리델하트는 클라우제비츠와 손자를 대비하여 서구의 경우 클라우제비츠의 이상적이고 절대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아 유혈적이고 극단적인 전략을 추구한 반면, 손자의 사상은 현실주의적이고 절제된 형태로서 서구의 사상보다 우위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B. H. Liddell Hart, "Forward", Sun Tzu, Samuel B. Griffith, trans., *The Art of War* (New York: Buccaneer Books, 1976), pp. v-vii.

3) Michael I. Handel, *Master of War: Classical Strategic Thought* (London: Frank Cass, 2001), pp. 33-39, 63.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9-332-B00689).

** 국방대학교 부교수

비츠의 경우 단지 군사적 수준에서 '전쟁수행 전략'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는 반면, 손자는 정치적·외교적·군사적 수준을 포괄하여 '전쟁수행 전략'은 물론 '전쟁준비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만일 클라우제비츠가 손자와 마찬가지로 외교적 수준에서 전쟁을 논하였다면 '유혈의 전투' 외에 '부전승'의 중요성을 제기하였을 것이다.

최근 중국의 전략문화에 대한 패러다임 논쟁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페어뱅크(John K. Fairbank)는 공자와 맹자를 중심으로 한 정치사상적 수준에서 중국의 전략문화를 논의하는 반면, 존스톤(Alastair Iain Johnston)은 무경7서(武經七書)의 내용을 분석하는 등 군사적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⁴⁾ 또한 페어뱅크는 문화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찬란하고 풍부한 중국의 전체 역사를 아우르며 전략문화를 연구한 반면, 존스톤은 명의 흥기와 쇠락이라는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주안을 두고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페어뱅크와 존스톤은 중국의 전략문화로서 서로 상반되는 내용의 '공자-맹자 패러다임'과 '전쟁추구 패러다임'을 제기하게 되었다. 한편 존스톤은 1949년부터 1992년까지의 국가 간 분쟁에서 나타난 중국의 군사력 사용을 분석한 논문을 통해 중국의 군사력 사용 빈도와 호전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하여 공자-맹자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공격하였다.⁵⁾ 그러나 그의 주장이 전통적인 견해와 다른 것은 결국 그가 다루는 시기가 과거 중국의 왕조시대와 다르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전략문화 논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한 논쟁의 한계

4) John K. Fairbank, "Varieties of the Chinese Military Experience", Frank A. Kerman, Jr. and John K. Fairbank, eds., *Chinese Ways in Warfa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Alastair Iain Johnston,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5) Alastair Iain Johnston, "Chinese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 Behavior 1949-1992: A First Cut at the Data", *The China Quarterly*, Vol. 153(March 1998), pp. 14-17, 24.

는 무엇이고 중국의 전략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현대 중국의 전략문화의 기원은 무엇이고, 이는 전통적인 전략문화의 변화와 연속성 측면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현대 중국의 전쟁수행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투영되었는가?

전략문화 논쟁은 곧 한 부류의 전략문화는 다른 부류의 전략문화와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전략문화 연구는 서구의 전략문화와 비교하여 대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왔다. 여기에는 전쟁이나 군사력 사용에 관한 동양과 서양의 생각과 행동양식, 그리고 나아가 전략적 선택이 크게 다르다는 전제가 깔려있다.⁶⁾ 이 연구에서도 중국은 역사를 통해 서구와 다른 전략문화를 형성해 온 것으로 본다. 그것은 서로 다른 환경, 즉 지리, 역사, 사상, 정치체제, 군사조직 등 전략문화를 형성한 원천이 다르기 때문이다.⁷⁾ 그러나 이와 같이 전략문화를 통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개념적이어서 유의미한 논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적 틀에 모든 것을 맞추는 식이 되어 특정 시대의 전쟁과 전략을 분석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전통적인 전략문화의 연속성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대환경에 따른 전략문화의 변화도 함께 고찰해야만 중국의 전략문화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6) Howard L. Boorman and Scott A. Boorman, "Strategy and National Psychology in China", *The Annals*, Vol. 370(1967), p. 152. 서구는 기술, 기동력, 그리고 화력을 앞세운 공격 위주의 섬멸전을 추구하는 반면, 중국은 책략과 기습을 통해 방어적이고 소모적인 전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접근방법 면에서 서구는 나폴레옹 전쟁에서와 같이 결정적인 지점에 병력과 화력을 집중하는 직접적인 전략을 선호하는 반면, 중국은 직접적인 전쟁이나 전투보다 계략을 통해 적의 심리를 교란시키고 기습을 중시하는 등 보다 간접적인 전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Alastair Iain Johnston, *Cultural Realism*, pp. 25-26.

7) 전략문화의 다양한 원천에 관해서는 Jeffrey S. Lantis and Darryl Howlett, "Strategic Culture", John Baylis et al., *Strategy in the Contemporary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 88 참조.

이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다. 첫째, 현대시기 중국의 전략 문화를 다룬다. 그것은 공산혁명 이후 마오쩌둥의 전략이 현대 중국의 전략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것이 기존의 공자-맹자 패러다임에 입각한 중국의 전략문화의 성격을 변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분석수준 면에서 정치적·군사적 수준에 초점을 맞춘다. 기본적으로 서구의 전략이 주로 군사적 성격을 갖는 반면, 중국의 전략은 군사적 성격과 함께 정치적 성격을 동시에 갖기 때문이다. 셋째, 분석영역으로 전쟁수행에 주안을 둔다. 물론 전쟁수행에 관련된 군사교리 또는 군사전략도 분석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현대 중국의 전략문화는 과거 공자-맹자 패러다임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만 주변 약소국을 겨냥한 '제국적 전략' 또는 '강자의 전략'이 아닌 주요 강대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약자의 전략'을 반영한 것임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글은 먼저 중국의 전략문화 논쟁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연구를 위한 방법론과 함께 현대 중국의 전략문화 분석을 위한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현대 중국 전략문화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마오쩌둥 전략을 고찰하고 이를 중국내전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전쟁사례인 1979년 중월전쟁을 분석하고, 결론으로서 중국의 전략 문화에 관한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한다.

2. 중국의 전략문화 논쟁 : 비판적 고찰

(1) 중국의 전략문화 논쟁

1) 공자-맹자 패러다임(Confucius-Mencian paradigm)

공자-맹자 패러다임은 페어뱅크를 중심으로 한 학자들이 제기한 것으로

1990년대 존스톤의 연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중국의 전략문화에 관한 정통적 입장을 견지하였다.⁸⁾ 이에 따르면 중국은 유교적 영향으로 평화와 조화를 중시하면서 전쟁과 폭력을 혐오하는 전통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급적 전쟁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중국은 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최후의 수단으로만 군사력을 동원하며, 이때에도 전쟁의 범위와 기간을 가급적 제한한다는 것이다.⁹⁾

공자-맹자 패러다임에서 제기하는 중국 전략문화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전략적 방어를 선호한다. 중국이 전통적으로 토루, 성벽, 요새수비대, 고정된 진지방어, 외교적 술책과 동맹형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반면, 침략이나 섬멸전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한다. 아마도 만리장성은 중국의 전략문화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상징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한전쟁을 추구한다. 중국은 전쟁에 임할 때 분명하게 설정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주안을 두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군사력의 효용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 손자가 제기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으뜸이다(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라는 부전승 사상이 아직도 중국의 전략문화에 투영되어 있다는 것

8) John K. Fairbank, "Varieties of the Chinese Military Experience", p. 7; Edward S. Boylan, "The Chinese Cultural Style of Warfare", *Comparative Strategy*, Vol. 3, No. 4(1982), pp. 342-346; Gerald Segan, "Defense Culture and Sino-Soviet Relation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8(1985), p. 180; Tiejun Zhang, "Chinese Strategic Culture", *Comparative Strategy*, Vol. 21(2002). 페어뱅크에 의하면 중국은 영웅주의와 폭력을 존경하지 않고 무에 대해 문의 우위를 강조하는 경향, 적군의 섬멸을 목표로 하는 공세적 전쟁보다는 방어적이며 소모적인 전쟁을 선호하는 경향, 그리고 지구적이며 팽창주의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제한적이고 징벌적 성격의 전쟁을 수행한다.

9) 화이팅(Allen Whiting)은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을 연구하면서 중국이 군사개입을 극도로 꺼리는 가운데 단지 제한된 목적을 가지고 최후의 선택으로 개입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현대 중국이 여전히 "공자-맹자 패러다임"에 입각한 전략문화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Allen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0), pp. 151-162.

이다. 공자-맹자 패러다임을 추종하는 학자들은 이와 같은 방어적이고 비폭력적인 전략문화가 손자로부터 마오쩌둥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⁰⁾

2) 전쟁추구 패러다임(parabellum paradigm)

‘전쟁추구 패러다임’은 ‘공자-맹자 패러다임’과 반대의 입장에서 중국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현실주의적 전략문화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존스톤은 전통적으로 제기되어 온 ‘공자-맹자 패러다임’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중국의 고대 전략서인 무경칠서에 나타난 전략사상을 세 개의 변수, 즉 전쟁의 역할, 전쟁의 본질, 그리고 군사력의 효용성 차원에서 분석한다.¹¹⁾ 그리고 그 결과 중국의 전략사상은 서구의 현실주의에서 발견되는 전쟁추구(parabellum) 또는 강경한 현실주의적 세계관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중국은 전통적으로 전쟁을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우연적 요소가 아닌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적과의 분쟁에서 다투는 이해관계를 제로섬(zero-sum)적이고 서로 타협이 어려운 것으로 보며, 폭력 그 자체는 적으로부터의 위협을 다루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무경칠서가 정적인 방어와 포용적 정책보다는 공세적인 전략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그는 명나라의 대몽골 및 청 정책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전략적 행동을 분석한 결과 명의 무경칠서에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공자-맹자 패러다임보다는 전쟁추구 패러다임이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 시기 명은 정당한 전쟁론이나 방어적·비폭력적 전략을 추구하기보다는 상대적 군사력을 중시하여 적에 대해 우위에 있을 때 공세적 전략을 선호

하지만 그러한 능력이 감소할 경우에는 덜 강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존스톤은 기존의 연구가 중국의 현실적인 측면을 보지 못하고 관념적인 공자-맹자 사상에 경도되어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중국의 전략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구조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나 기대효용(expected utility) 이론과 같은 현실주의적 이론에 부합한다고 본다.¹²⁾

이렇게 볼 때 중국의 전략문화는 그 자체로 독특한 것이 아니며, 서구의 현실주의적 사고와 행동 경향에 비추어 별반 다르지 않다. 전쟁추구가 모든 시기의 문화에 배어있는 한 중국의 현실정치적 행동은 ‘문화적 현실주의’의 산물로 간주할 수 있다.¹³⁾

3) 방어의 신화

스코벨은 중국의 전략문화가 이중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평화적 또는 호전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중국의 전략문화는 유교적 신념과 현실주의 논리가 결합하여 ‘방어의 신화(cult of defense)’라는 전략문화를 형성하였다. 즉 분쟁회피 및 방어지향적인 유교문화와 군사적 해결 및 공세지향적인 현실정치적 문화가 결합되었다는 것이다. 방어의 신화는 역설적으로 중국으로 하여금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방어적 군사작전 대신 공세적 군사작전을 취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방어의 신화는 스스로를 평화적이고 방어적이라고 믿도록 함으로써 지도자들로 하여금 공세적 군사작전이 순수하게 방어적이고 정당한 수단이라는 합리화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¹⁴⁾ 이상주의적 신념이 현실주의적 논리를 합리화시키는 셈이다.

10) Alastair Iain Johnston, *Cultural Realism*, p. 25.

11) 무경칠서는 손자(孫子), 오자(吳子), 육도(六韜), 사마법(司馬法), 삼략(三略), 위료자(尉繚子), 이위공문대(李韋公問對)를 의미한다.

12) Alastair Iain Johnston, *Cultural Realism*, pp. 248-251.

13) Alastair Iain Johnston, *Cultural Realism*, p. 31.

14) Andrew Scobell, *China's Use of Military Force: Beyond the Great Wall and the Long March*(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 38.

(2) 전략문화 논쟁 분석: 분석 시기와 수준의 문제

기존의 연구들이 중국의 전략문화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기반을 구축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중국의 전략문화를 통시적인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 위해 전쟁과 전략에 관한 중국의 역사적 경험을 '균질화(homogenization)'하고 '과잉일반화(overgeneralization)'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의 전략문화가 여러 개의 다양하고 서로 다른 전략문화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인해 상충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¹⁵⁾

따라서 중국의 전략문화 연구는 다음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연구의 대상시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전략문화가 우세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중국 전체를 놓고 보자면 유교사상에 입각한 방어적 전략문화가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특정시기에서는 존스톤의 연구와 같이 현실주의적 전략문화가 두드러질 수 있다. 공자-맹자 패러다임은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현상유지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문화이다. 즉 중국은 제국으로서 유교적 전쟁관에 입각한 방어적이고 도덕적인 전략문화를 추구함으로써 주변의 약소국들을 통제하고 주변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문화는 제국의 흥망이 이루어지는 불안정한 시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제국이 쇠퇴하거나 새로 흥기할 때에는 급격한 현상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현실주의적 전략문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기의 전략문화와 이민족의 침입에 의해 왕조가 쇠퇴하거나 새로운 왕조가

15) Arthur Waldron, "Chinese Strategy from the Fourteenth to the Seventeenth Centuries", William Murray, et. al., eds., *The Making of Strategy: Rulers, States, and War*(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p. 88, 113. 예를 들어 중국의 전략문화는 한족을 중심으로 정착생활을 해왔던 농경민족에 의한 방어적 전략문화와 외곽에서 침략과 약탈을 일삼던 유목민족에 의한 공세적 전략문화가 혼재되어 있다.

부상할 때의 전략문화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하는 역사적 시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셈이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분석수준에 따라 중국의 전략문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자-맹자 패러다임'의 경우 학자들은 정치적·사상적 수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중국의 전략문화가 전쟁혐오적인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존스톤의 경우 군사전략적 수준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중국의 전략문화를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존스톤은 전략문화를 전쟁의 역할, 전쟁의 본질, 그리고 군사력의 효과라는 세 개의 변수로 접근하고 있으나 그가 분석대상으로 삼은 무경철서는 군사전략을 논한 서적으로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요소보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현실적 방책을 담은 병서이다. 이렇게 볼 때 그의 연구가 중국의 전략문화를 군사력의 사용을 중시하고 보다 공세적 사상을 강조하는 '전쟁추구 패러다임'에 가깝다는 결론을 제기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전략문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모두 적실성을 갖는다. 다만 학자들이 서로 다른 연구결과를 제기하는 것은 각자의 관심영역과 연구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시기와 수준, 그리고 필요하다면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여 접근한다면 학자들 간에 공통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3) 전략문화 분석을 위한 관점

현대 중국의 전략문화는 역사적으로 통시적인 중국의 전략문화라 할 수 있는 공자-맹자 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현대 중국은 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약한 행위자 또는 약한 국가의 입장에서 생존을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했다. 따라서 중국의 전략은 약자로서의 전략이었으며, 이는 현대 중국이 공자-맹자 패러다임과 다른 형태

의 전략문화를 형성하는 출발점으로 작용하였다. 즉 현대 중국의 전략문화는 안정된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현상에 대한 강한 적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 그리고 과거 제국으로서 주변국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한 강대국들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전략문화를 분석하기 위한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정학적 요인의 관점이다. 강대국의 안보는 주변국 및 경쟁국가와의 역학관계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냉전기 11개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중국으로서는 주변국이 적성화되는 것을 커다란 안보적 위협으로 인식한다. 이는 서구 국가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현대 중국의 경우 강대국 및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복잡하여 더욱 취약성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¹⁶⁾

둘째, 추구하는 전쟁의 성격, 즉 전면전이나 제한전이나 하는 측면에서의 관점이다. 중국의 대주변국 군사개입은 정작 피개입국보다는 그 배후의 강대국을 겨냥하여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중국은 항상 약자의 입장에서 전쟁을 제한해야 했다.¹⁷⁾ 이는 과거 서구에서 서로 대등한 국가들 간에 전면전을 감수하는 경향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지연전과 신속결전의 관점이다. 중국은 강한 적과의 전쟁이 불가피할 경우 불리한 상황에서의 결전을 회피하면서 지연전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¹⁸⁾ 이는 결전을 회피하면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신속하게 군사력을 집중하여 결전을 추구하는 서구의 전략과 다르다. 그러나 주변 약소

16) Changhee Park, "Why China Attacks: China's Geostrategic Vulnerability and Its Military Intervention",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0, No. 3 (September 2008), pp. 263-267.

17) Robert Ross, *The Indochina Tangle: China's Vietnam Policy, 1975-1979*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 8.

18) 박창희, 「전략의 패러독스: 비대칭전쟁에서의 '결전'과 '약자의 승리」,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1호(2009), pp. 326-330.

국에 대한 중국의 군사개입은 다른 강대국이 개입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오히려 신속결전을 추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넷째, 정치적 목적과 군사목표의 관점이다. 군사력은 철저하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비록 군사적으로 불리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국은 과감하게 군사력을 사용한다. '예방전쟁' 또는 '응징' 차원의 군사력 사용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의 군사력 사용은 폴(T. V. Paul)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제한된 목적하의 제한된 군사행동이 될 것이다.¹⁹⁾

<표 1> 현대 중국의 주요 전쟁과 전략문화적 특성

구 분	전쟁사례	전략문화적 특성
혁명전	국공내전	- 지구전 - 절대전(혁명전쟁) - 인민전쟁 전략(정치 + 군사)
국제전	한국전쟁	- 지정학적 요인 - 전쟁의 제한: 지구전(결전추구) - 군사의 정치 종속 - 예방전쟁
	중인전쟁	- 지정학적 요인 - 전쟁의 제한: 신속결전 추구 - 군사의 정치 종속 - 예방전쟁
	중월전쟁	- 지정학적 요인 - 전쟁의 제한: 신속결전 추구 - 군사의 정치 종속 - 응징, 예방전쟁

19) T. V. Paul, *Asymmetric Conflicts: War Initiation by Weaker Power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 13.

다섯째, 전략의 수준이라는 관점이다. 중국은 서구와 달리 전략을 군사적 수준에 한정하지 않고 정치적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중국은 인민전쟁 전략을 통해 국민을 정치적으로 교화시키고 참여토록 함으로써 그들의 약한 군사력을 보완하려 하였다.²⁰⁾ 국민의 동원은 전쟁의 정당성과 국내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최악의 경우 인민들이 주체가 되어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4세대 전쟁을 가능케 한다.

3. 현대 중국 전략문화의 기원

(1) 마오쩌둥 전략의 형성

현대 중국 전략문화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마오쩌둥 전략은 1920년대 후반 중국공산당 혁명노선의 실패를 반영한 것이었다. 천두슈(陳獨秀)와 장궈타오(張國燾)가 국민당과의 타협을 고집함으로써 혁명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취추바이(瞿秋白), 리리산(李立山), 그리고 왕밍(王明)은 대도시 지역에서의 무모한 무장봉기를 추구함으로써 실패하고 말았다.²¹⁾ 마오쩌둥은 이들의 실패를 교훈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노선을 추구하였다.

첫째, 중심(重心, center of gravity)을 도시가 아닌 병력으로 보았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도시를 중심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군

20) Edward L. Katzenbach, Jr. and Gene Z. Hanrahan, "The Revolutionary Strategy of Mao Tse-tung",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70, No. 3(September 1955), pp. 327-328.

21) Mao Tse-tung, "Problems of Strategy in China's Revolutionary War", *Selected Works of Mao Tse-tung*, Vol. 1(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67), p. 249, fn. 4.

벌들이 대도시에서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자원을 수탈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17년 불세비키혁명은 중국공산당으로 하여금 대도시가 갖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해 주었으며, 1927년 국공합작이 결렬된 이후 대도시에서의 대규모 무장봉기를 추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도시를 탈취하는 것보다 농촌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그는 1927년 징강산(井岡山)에 들어가 홍군을 건설하였으며, 병력을 보존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였다. 1947년 12월 중국공산당 중앙회의 보고서에서 제시한 10개의 군사원칙은 "적의 병력 섬멸을 주요 목표로 하고 도시나 지역의 확보 또는 탈취는 주요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중력의 중심이 피아 전투력, 즉 병력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²²⁾

둘째, '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략에서 벗어나 '농촌'을 중심으로 한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소련의 불세비키혁명을 따라 노동자와 농민에 의한 대도시 봉기를 통해 혁명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도시에는 국민당의 강력한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어 제대로 무장되지 않은 노동자와 농민들이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다. 마오쩌둥은 이와 같은 모험주의 전략이 위험하다고 보고 '농촌에서 도시를 포위'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도시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농촌에서 혁명역량을 강화한 다음 공격해도 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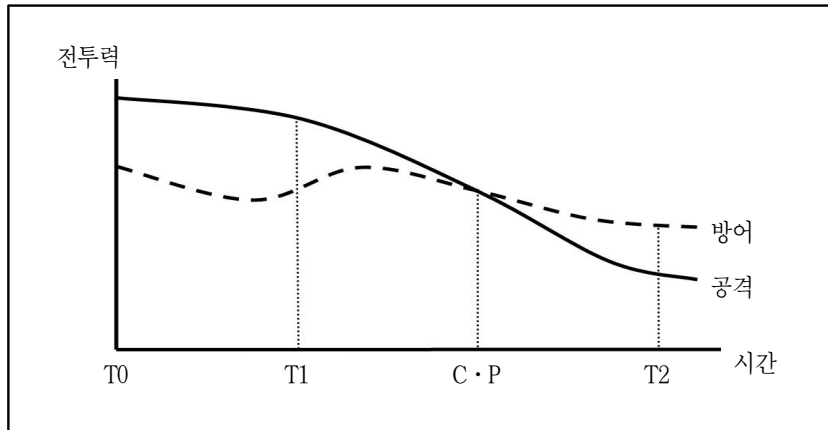
셋째, 적의 공격이 정점(culminating point of attack)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불리한 상황에서의 결전을 회피한다. 초기 공산당의 전략이 그러했던 것처럼 피아 군사력 균형이 불리한 상황에서 적이 강요하는 결전에 임한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마오쩌둥은 지구전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이 공격해 올 경우 불리하다면 반드시 퇴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2) Mao Tse-tung, "Problems of Strategy in China's Revolutionary War", pp. 161-162.

우리는 퇴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 결전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 이치를 무시하고 현재 처한 상황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결전을 추구하여 겨우 한 개의 도시나 일부 지역을 탈취하려 한다.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은 도시와 지역을 잃게 될 뿐 아니라 군사력마저 보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²³⁾

이와 같은 결전의 회피는 중심인 병력을 보존하였다가 적의 공격이 정점을 지난 후 피아 전투력 균형이 유리하게 전환되었을 때 역으로 적의 중심을 격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격하는 측이 추구하는 T1 시점에서의 결전을 회피하고 T2 시점에서 결전을 추구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그림 1] 공격의 정점과 결전의 시기



23) Mao Tse-tung, "On Protracted War", *Selected Works of Mao Tse-tung*, Vol. 1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67), p. 172.

24) 박창희, "전략의 패러독스: 비대칭전쟁에서의 '결전'과 '약자의 승리'", pp. 329-330.

(2) 전쟁수행전략: 인민전쟁과 지구전

마오쩌둥의 전략은 정치적 수준에서 인민전쟁전략, 그리고 군사전략적 수준에서 지구전으로 발전하였다. 인민전쟁이라는 개념은 1920년대 말 징강산(井岡山) 투쟁에서부터 1930년대 후반 항일전쟁, 그리고 1940년대 전반기의 중국내전을 통해 발전된 것으로,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1945년 발표한 '연합정부론'을 통해서였다.²⁵⁾ 인민전쟁론이란 클라우제비츠가 지적한 전쟁의 삼위일체(trinity), 즉 정부(government), 군(military), 그리고 국민(people) 가운데 국민이라는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국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공산당의 군사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다수의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교화시켜 이들의 지원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전략이다.

지구전은 인민전쟁을 구현하기 위해 순수하게 군사적 관점에서 제시된 보다 구체적인 전쟁수행 전략이다. 마오쩌둥은 지구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있다. 제1단계는 적이 전략적 공격을 하고 아군이 전략적 방어를 하는 단계이다. 이때 전략적 방어란 별다른 저항 없이 뒤로 물러서는 소극적 방어를 지양하고, 적에게 부단한 기습과 공세행동을 가하는 적극적 방어를 추구한다.²⁶⁾ 즉 퇴각하는 과정에서 적의 일부를 과감하게 유인하여 포위 및 섬멸을 시도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적과 불리한 상황에서의 결전을 회피하여 아군의 병력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따라서 운동전이 주요한 전쟁형태가 되는 반면 유격전과 진지전은 보조적인 것이 된다.

제2단계는 전략적 대치단계로 적이 전략적 수비를 하고 아군이 반격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적은 제1단계 말기에 이르러 병참선이 신장되고 공격기세가 둔화될 것이며,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점령한 지역을 방

25) Mao Tse-tung, "On Coalition Government", *Selected Works of Mao Tse-tung*, Vol. 1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67), pp. 213-217.

26) Mao Tse-tung, "Problems of Strategy in China's Revolutionary War", p. 207.

어하는 데 급급할 것이다. 이때 아군은 적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나 후방지역을 타격하여 적의 군사력을 소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 주요한 작전형태는 유격전이며, 운동전과 진지전은 보조적인 것이 된다. 적이 결전을 추구하지 않는 이상 운동전을 통해 퇴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유격전의 누적된 효과는 결국 피아 역량의 변화를 가져와 전략적 반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제3단계는 아군이 전략적 반격을 하고 적이 전략적 퇴각을 하는 단계로서 그동안 미뤄왔던 결전을 추구하는 단계이다. 마오쩌둥은 “오직 결전만이 양군 간의 승패문제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하였다.²⁷⁾ 결정적인 전투는 비정규군에 의해서 수행되는 유격전이 아니라 정규군에 의한 정규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주요한 전쟁형태는 운동전과 진지전이 될 것이며, 유격전은 운동전과 진지전을 보조하여 전략적 배합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²⁸⁾

마오쩌둥은 강한 적의 공격에 대해 퇴각할 줄 알았다. 그것은 초기 공산당 지도자들의 모험적 노선의 실패와 국민당 군의 5차례에 걸친 포위토벌을 겪으면서 얻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공산당이 국민당보다 약하기 때문에 나온 전략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마오쩌둥의 퇴각과 지구전 전략은 약한 측에서 취해야 할 전략일 뿐, 만일 홍군이 처음부터 적보다 우세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마오쩌둥의 전략적 선택은 ‘전략적 퇴각’이 아닌 ‘전략적 공격’이 되었을 것이다.

(3) 국공내전 수행

1946년 6월 26일 장제스는 대규모 부대를 동원하여 공산당 근거지에 대한 총체적 공세를 개시하였다. 군사력 균형 면에서 장제스는 군사적 승리를

27) Mao Tse-tung, “Problems of Strategy in China’s Revolutionary War”, p. 224.

28) Mao Tse-tung, “On Protracted War”, pp. 140, 172-174.

확신하고 있었다. 1945년 9월 국민당 정부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국민당은 병력 370만 명, 소총 160만 정, 야포 6천 문을 보유한 반면, 공산당은 병력 32만 명, 소총 16만 정, 야포 6백 문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²⁹⁾ 장제스는 모든 전선에 걸쳐 도시를 수복하고 양자강 북부의 주요 보급로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주요 도로와 철도망을 통해 국민당 군은 주요 도시 주변지역과 외곽지역으로 통제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³⁰⁾ 초기 국민당 군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10월 초에는 베이징과 러허(熱河)성, 10월 말에는 신의주 건너편의 단둥(丹東), 그리고 1947년 중반까지는 공산당의 수도라 할 수 있는 옌안(延安)은 물론 하얼빈(哈爾濱)을 제외한 만주의 거의 모든 도시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과는 공산당의 지구전 전략에 기인한 바 크다. 공산당 군대는 제1단계 전략적 방어 개념에 입각하여 점령하고 있던 도시를 포기하면서 퇴각하였다. 마오쩌둥은 퇴각을 통해 장제스 군대가 과도하게 신장될 것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장제스 군대의 전선이 너무 넓은 반면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았는데, 실제로 장제스의 군대는 총 190개 여단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중 절반이 점령지역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전투력은 그 절반에 불과하였다. 마오쩌둥은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 그들의 수도인 옌안마저도 포기하면서 퇴각하였다. 국민당 군대는 대부분의 주요 도시와 철도를 장악할 수 있었으나 공산당 군대의 주력은 별다른 손실없이 보존되고 있었다.³¹⁾

29) G. B. Ernburg, *Ocherki Natsional'no-osvoboditel'noi Bor'by Kitaiskogo Narada* (Moscow, 1951), p. 227, quoted in F. F. Liu, *A Military History of Modern China, 1924-1949*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6), p. 254. 1946년 7월 내전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의 실제 병력은 국민당이 430만인데 비해 공산당은 120만으로 국민당이 약 4배의 압도적인 수적 우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中國國防大學, 『中國人民解放軍戰史簡編』(北京: 解放軍出版社, 2001), pp. 517-518.

30) Suzanne Pepper, “The KMT-CCP Conflict, 1945-1949”, Lloyd E. Eastman, et al., *The Nationalist Era in China, 1927-194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 326, fn. 147.

1947년 후반기부터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하였다. 국민당 군대의 공격이 정점에 도달한 반면, 공산당은 농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충분한 군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최초 대도시와 주요 교통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던 국민당 군은 아이러니하게도 점과 선으로 연결된 형태가 되어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게 되었다. 공산당은 곳곳에서 유격전을 통해 과도하게 신장된 국민당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대도시를 고립시킬 수 있었다.³²⁾ 국민당 군대는 대도시를 잃지 않기 위해 더욱 수세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공산당은 주요 도시를 단위로 마치 섬처럼 나누어 고립된 국민당 군대에 대해 수적인 우세를 달성하면서 작전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1948년 중반부터 마오쩌둥은 국민당 군대에 대해 본격적으로 결전을 추구하였다. 그의 계획은 북으로부터 남으로, 약한 적부터 강한 적순으로 분산되고 고립된 적을 각개격파하는 것이었다. 랴오선전역(遼瀋戰役), 평진(平津)전역, 그리고 화이하이(淮海)전역은 중국내전의 승패를 결정하는 3대전역이었다. 장제스는 이미 전세가 공산당 측에 유리하게 기울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력을 보존하기보다는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도시를 고수하려 하였다. 그는 만주지역과 지난(濟南) 등에 흩어져 있는 병력을 집중하여 운용해야 한다는 참모진들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민당 군대는 분산된 상태에서 공산당 군대에 의해 무기력하게 각개격파를 당하였다.

랴오선전역은 린바오(林彪)가 만주지역에서 국민당 군대를 격파한 전역이었다. 만주지역의 국민당 군대는 병력이 열세에 있었을 뿐 아니라 선양(沈陽), 진저우(錦州), 그리고 창춘(長春)에 병력을 나누어 배치하고 있었다. 공산당 군대는 본토와 만주를 잇는 진저우를 먼저 격파하였고, 이후 고립된 선양과 창춘의 국민당 군대로부터 항복을 받았다.³³⁾ 이후 린바오의

31) Suzanne Pepper, "The KMT-CCP Conflict, 1945-1949", p. 337.

32) Department of State, *United States Relations With Chin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eriod 1944-1949*, August 1949, p. 318.

동북야전군과 네룽전(聶榮臻)의 화북야전군은 평진전역에서 푸쥘이(傅作義)가 이끄는 국민당 군대를 격파하였다. 그리고 공산당은 내전의 세 번째 격전이었던 화이하이전역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국민당 군대를 양자강 남쪽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하였다.³⁴⁾

요약하면 중국내전에서 마오쩌둥은 조기에 결전을 시도하는 장제스의 공격을 맞이하여 비록 공간을 내주더라도 병력을 보존하는 전략을 취하였고, 이후 국민당의 공세가 한계에 도달하자 소규모의 승리를 누적적으로 축적해 나감으로써 결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전쟁수행 과정에서 공산당이 인민해방군 병력을 크게 증강할 수 있었던 것은 인민에 대한 정치적 교화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다. 즉 농촌을 장악한 공산당은 토지혁명을 통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공산당이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중국내전에서 나타난 공산당의 전쟁수행은 군사적 차원에서의 전략뿐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의 전략이 가미된 것이었다.

4. 중월전쟁과 현대 중국의 전쟁수행

(1) 지정학적 취약성과 군사개입 결정

중국과 베트남은 제1차 및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혈맹의 관계를 유

33) Mao Zedong, "The Concept of Operation for the Liaohsi-Shenyang Campaign", *Selected Works of Mao Zedong*, Vol. 4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67), pp. 261-266

34) Mao Zedong, "The Concept of Operation for the Peping-Tientsin Campaign", *Selected Works of Mao Zedong*, Vol. 4, pp. 289-293; Mao Zedong, "The Concept of Operation for the Huai-Hai Campaign", *Selected Works of Mao Zedong*, Vol. 4, pp. 279-282.

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는 1975년 4월 사이공 함락 이후 4년 동안 치명적일 만큼 적대적인 관계로 변화하였다. 여기에는 중소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베트남이 친소노선을 견지하는 데 대한 중국의 위협인식이 크게 작용하였다. 마오쩌둥은 중소 국경분쟁 이후 소련과의 갈등이 격화되자 소련의 패권주의에 대항하는 제3세계 연대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여기에 베트남을 끌어들이려 하였다. 1975년 9월 2일 베트남 건국기념일에 하노이를 방문한 중국 부총리 천시련(陳錫聯)은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단합하여 제국주의·식민주의·패권주의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고 하며 베트남의 반소연대 동참을 요구하였다.³⁵⁾ 그리고 1977년 11월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르 두안(Le Duan)이 베이징을 방문하자 화궈핑(華國鋒)은 반패권 연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반소연대에 베트남이 참여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³⁶⁾

그러나 베트남은 어느 한 쪽의 편을 드는 정책을 거부하고, 중립을 유지함으로써 최대한의 실리를 추구하려 하였다. 즉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지렛대를 쥐고 양측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와 같은 베트남의 '양다리 걸치기'가 필경 자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경계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반소연대 참여를 거부하는 베트남의 태도를 적대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³⁷⁾

중국이 우려한 대로 애초에 중립적이었던 베트남은 점차 소련의 지원에 더욱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베트남은 전후 국가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중국과 소련을 비롯한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절실했다. 1977년 6월 미 의회는 베트남에 대한 배상, 지원,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의 지불도 금지

35) Robert Ross, *The Indochina Tangle: China's Vietnam Policy, 1975-1979*, p. 65.

36) Steven J. Hood, *Dragons Entangled Indochina and the China-Vietnam War* (New York: M. E. Sharpe, 1992), p. 44; Robert Ross, *The Indochina Tangle*, p. 149.

37) Robert Ross, *The Indochina Tangle*, p. 38.

하도록 결의함으로써 베트남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였다.³⁸⁾ 이 같은 상황에서 마오쩌둥은 기대했던 것과 달리 그동안 베트남이 중국의 막대한 지원으로 통일을 이룬 만큼 이제 경제문제는 베트남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1975년 8월 마오쩌둥은 중국을 방문한 르 두안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는 베트남이 아니라 중국”이라며 200만 달러의 소규모 지원만을 약속하였다.³⁹⁾ 이에 실망한 르 두안은 외교상 관례인 답례만찬도 제공하지 않은 채 베이징을 떠났으며, 10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자리에서 브레즈네프로부터 향후 5년간 30억 달러의 대규모 지원을 약속받을 수 있었다.⁴⁰⁾ 이후 베트남과 소련의 관계가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소련의 전폭적인 경제원조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다.

반소연대 결성 문제와 경제적 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베트남 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그간 잠복하고 있던 화교문제와 국경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베트남의 친소화를 우려하여 베트남 정부의 화교 차별 정책에 대한 비난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었으나, 1977년 말부터 베트남과 소련 간의 관계가 급속히 발전하자 노골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에 자극을 받은 베트남 정부는 1978년 5월 남부지역에서 사유기업 활동을 금지시키고 화교들의 재산을 몰수함으로써 화교들을 더욱 탄압하였다. 남부지역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급격한 사회주의 개혁과 함께 중국과 베트남 간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베트남 내의 화교들은 공황에 빠졌고, 그해 수십 만의 화교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 남부지역으로 탈출하

38) Marilyn B. Young, *The Vietnam Wars, 1945-1990* (New York: Harper Perennial, 1991), p. 303.

39) “Mao Zedong and Le Duan, Beijing, 24 Sep 1975”, Odd Arne Westad, et al., eds., *77 Conversations between Chinese and Foreign Leaders on the Wars in Indochina, 1964-1977 Working Paper No. 22, CWIHP*, p. 194.

40) Robert Ross, *The Indochina Tangle*, pp. 59-61; Bruce A. Elleman, *Modern Chinese Warfare, 1795-1989* (New York: Routledge, 2001), pp. 285-286. 소련의 지원은 베트남의 코메콘(COMECON) 가입문제로 인해 즉각 이루어지지 않다가 1977년 베트남이 코메콘 가입의사를 표명하면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거나 '보트피플'이 되어 제3국으로 향했다.⁴¹⁾ 1978년 8월 화교문제에 대한 양국 간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비방과 비난만 오갔을 뿐, 해상을 통해 화교들을 이송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제안은 합의될 수 없었다. 이러한 험악한 분위기는 800마일에 이르는 국경지역에서 표출되어 양국 간 국경 충돌횟수는 1974년 121회였던 것이 1978년에는 1,100회로 증가하였다.⁴²⁾

1970년대 후반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 중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캄보디아가 베트남의 통제를 벗어나 완전한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해야 했다. 이미 라오스가 베트남의 영향력하에 들어간 상황에서 캄보디아는 지리적으로 베트남을 배후에서 견제하고 소련과 베트남의 안보협력을 방해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였다.⁴³⁾ 따라서 중국은 1975년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을 승인한 후 다량의 무기, 장비와 함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베트남과 소련의 관계가 강화되던 1977년 말에는 캄보디아에 1,500명의 고문단을 파견하고 3개 사단을 무장시킬 수 있는 장비와 탄약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경고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1978년 11월 소련과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어 12월 25일에는 캄보디아를 무력으로 침공하였다.⁴⁴⁾ 이로써 양국은 돌이킬 수 없는 적대관계로 갈라서게 되었다.

41) Marilyn B. Young, *The Vietnam Wars, 1945-1990*, p. 306; Robert Ross, *The Indochina Tangle*, pp. 177-178, 184.

42)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所, 『中華人民共和國軍事史要』(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05), p. 486; Daniel Tretiak, "China's Vietnam War and its Consequences", *The China Quarterly* No. 80(December 1979), p. 741, fn. 2.

43) Daniel Tretiak, "China's Vietnam War and its Consequences", p. 743; Henry J. Kenny, "Vietnamese Perceptions of the 1979 War with China", Mark A. Ryan, et al., eds., *Chinese Warfighting: The PLA Experience since 1949* (New York: M. E. Sharpe, 2003), p. 220.

44) Brantly Womack, *China and Vietnam: The Politics of Asymmet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 170.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중국의 안보에 핵심적 주변국인 베트남이 적대화되어 중국의 등을 노리는 '비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1979년 1월 말 덩샤오핑은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캄보디아를 공격한 베트남을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⁴⁵⁾

중국은 베트남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중국의 안전과 국경안정을 위해 베트남이 도처에서 제멋대로 횡포를 부리는 것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이러한 덩샤오핑의 언급은 베트남이 중국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국 중국의 베트남 공격은 핵심적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이에 따른 지정학적 취약성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정치적 목적은 베트남에 교훈을 주는 것이었다.⁴⁶⁾ 즉 소련과의 동맹을 믿고 캄보디아를 침공하는 등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베트남을 응징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중국군의 군사적 목표는 -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는 없지만- 제한적인 것으로 국경지역 인근에서 베트남군 주력을 격파하고 국경지역의 일부 베트남 도시를 점령하는 것이었다.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를 점령하거나 그 이상 남쪽으로 진격하는 것은 자칫 소련의 군사개입을 초래함으로써 전쟁을 확대할 위험이 있었다.

중국은 소련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세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⁴⁷⁾ 첫째, 덩샤오핑은 미국을 방문하면서 베트남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때 의도적으로 소규모의 군사행동에 그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즉 중국의 공격이 제한적일 경우 소련은 굳이 참전

45) New York Times, 31 January 1979, quoted in Daniel Tretiak, "China's Vietnam War and its Consequences", p. 743.

46) Daniel Tretiak, "China's Vietnam War and its Consequences", p. 743.

47) Bruce A. Elleman, *Modern Chinese Warfare, 1795-1989*, p. 290.

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양국 간 무언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둘째, 소련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이나 용어사용을 금지하였다. 예를 들어 소련을 지칭하면서 북극곰(polar bear), 종이 북극곰(paper polar bear) 등의 언급을 삼갔다. 셋째, 베트남 공격 시 해군이나 공군을 투입하지 않고 육군을 중심으로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경우 국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정도로 전쟁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군이 작전을 개시한 지 3주 만인 3월 5일 일방적 철수를 발표한 것은 아마도 제한적인 공격이라는 무언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소련에 개입의 빌미를 주지 않고 나름대로 영광스럽게 철수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초부터 중국의 베트남 공격은 제한적인 성격의 군사작전으로서 사전에 신중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2) 중국군의 전쟁수행

중국이 베트남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었다. 먼저 중국군이 베트남 국경을 침범하는 횡수가 증가하였는데, 1978년 월평균 49회였던 것이 1979년 1월에는 171회, 2월 17일 공격 시까지 그 달의 16일 동안에는 230회에 달하였다.⁴⁸⁾ 1월과 2월 초 국경전역에 걸쳐 많은 사건이 보고되었지만 베트남 정부는 특히 랑손 지역의 카오록(Cao Loc)에 대한 침입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카오록은 랑손에 이르는 길목이고, 이 두 도시는 중국 국경으로부터 하노이에 직접 이르는 도로상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2월 4일 200여 명의 중국군 병력이 포병과 기관총 지원을 받아 카오록 지역으로 약 200m 가량 진입해 왔다는 보고가 있었다. 약 1주 후인 2월 10일 중국군은 베트남 지역 마을에 박격포 및 기관총 사격을 가한 후 병력을 투입하여 탄로아(Thanh Loa) 지역을 장악하였

으며, 랑손에서 북동쪽으로 14km 떨어진 400고지를 점령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군은 국경지역에서 심각한 상황을 야기시키면서 20개 사단, 30만의 병력, 700~1,000대의 항공기, 1,000대의 전차, 그리고 1,500대의 화포를 집결시키고 있었다.⁴⁹⁾

중국의 전쟁준비 신호를 인식한 베트남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베트남은 소련 및 미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군보다 우세하며, 중국군은 그동안 문화혁명으로 전투준비태세가 형편없다는 것이 그러한 자신감의 근거였다. 베트남 정부는 한편으로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형제국가를 공격하기 어려울 것으로 믿고 있었다.⁵⁰⁾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베트남과의 전쟁을 반대할 것이므로 그러한 압력이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다만 베트남은 비록 중국이 공격해 오더라도 덩샤오핑의 언급처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므로 국경지역에서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2월 17일 동이 트기 전에 중국군 보병사단은 강력한 포병화력의 지원하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국은 광시(廣西)와 윈난(雲南)의 국경지역 부대들이 국경지역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4개 현대화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베트남에 대해 '자위반격전(自衛反擊戰)'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⁵¹⁾ 중국군은 전 국경지역에 걸쳐 26개 이상의 지역에서 출발하여 라이차우(Lai Chau), 라오카이(Lao Cai), 하강(Ha Giang), 카오방(Cao Bang), 그리고 랑손(Lang Son)에 이르는 5개의 접근로에 공격을 집중하였다. 중국의 군사적 목표는 이들 지역을 점령하는 것뿐 아니라 베트남군의 주력을

49) Henry J. Kenny, "Vietnamese Perceptions of the 1979 War with China", pp. 228-229.

50)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은 중국의 공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베트남은 소련과 동맹조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중국이 군사적으로 공격해 올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캄보디아에 군사력을 투입하고 있는 베트남이 중국과 전면전에 돌입한다는 것은 베트남 정부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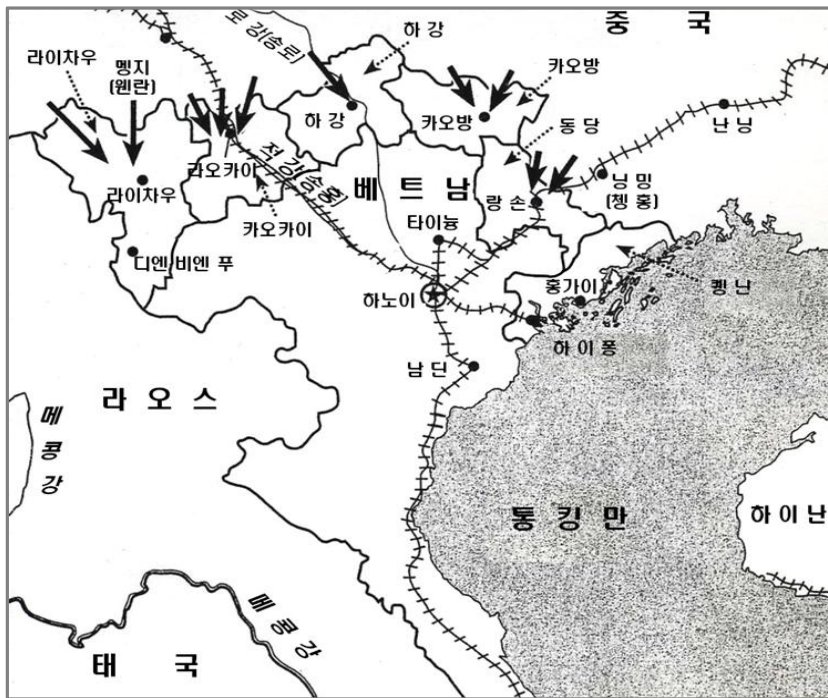
51) 中共中央黨史研究室, 『中國共產黨歷史大事記』(北京: 中央黨史出版社, 2006), p. 305; 李寶俊, 『當代中國外交概論』(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6), p. 177.

48) Henry J. Kenny, "Vietnamese Perceptions of the 1979 War with China", p. 227.

파괴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군사행동을 “자위를 위한 반격”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중국군이 국경지역을 넘어 ‘적강 삼각주’로 진입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지 않으려 조심하였다. 공격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베트남 내에 진입한 중국군은 8개 사단으로 약 1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⁵²⁾

베트남은 중국군의 공격에 대해 민병을 동원하여 맞섰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의 공격에 대비하여 수개월 전부터 국경지역 주민들에게 소화기를 제공

[그림 1] 중국의 베트남 공격 요도



52) Henry J. Kenny, "Veitnamese Perceptions of the 1979 War with China", pp. 229-230.

하고 그들을 훈련시켰다. 약 75,000~10만 명의 민병이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중국군의 날카로운 공격을 잘 견뎌내었다. 베트남은 중국군이 적강 삼각주를 돌파할 경우를 대비하여 5개의 정규군 사단을 투입하지 않고 예비로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국군의 병참선이 신장된 후 이들 주력을 투입하여 반격을 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경지역에서 베트남군의 주력을 격파하려던 중국군의 의도는 좌절되었다. 3월 초 격전이 벌어졌던 랑손 지역에서도 베트남 정규군은 소수만 투입되었으며 대부분 민병이 전투를 수행하였다.⁵³⁾

중국군은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중국군은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인해 첨단기술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근현대화를 추구할 수 없었으며, 지난 10년간 전투경험은 물론 그나마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을 수도 없었다.⁵⁴⁾ 따라서 중국군의 공격은 더디게 이루어졌고, 부대들 간의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많은 경우 연대급 부대들 간의 통신을 위해 수기가 사용되었다. 보급체계도 엉망이어서 보병부대가 식량과 탄약을 받기 위해서는 수십 km 떨어진 보급소에 병력을 보내야 했다. 정글, 절벽, 가파른 언덕으로 이루어진 험준한 지형은 전차와 트럭을 동원한 중국군의 공격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중국군의 공격대형은 일렬중대가 되기 일쑤였으며, 포병은 베트남 민병대에 의해 많은 희생을 치르고서야 기동부대를 지원하기 위한 화력진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베트남군은 농가에서 농가로, 병커에서 병커로, 터널에서 터널로 이동하면서 주요 기동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박격포 공격을 가하였으며, 매복을 통해 중국군을 타격하였다. 베트남 민병들의 영웅적 방어로 인해 중국군은 많은 병력손실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국경지역의 주요 도시를 점령하는 데 실패하였다.⁵⁵⁾

53) Henry J. Kenny, "Veitnamese Perceptions of the 1979 War with China", p. 230.

54) Henry J. Kenny, "Veitnamese Perceptions of the 1979 War with China", p. 230.

55) Henry J. Kenny, "Veitnamese Perceptions of the 1979 War with China", pp. 228-231.

중국군은 재편성 후 랑손지역에서 결전을 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2월 27일 랑손 전역에서 중국은 랑손 외곽지역에 대해 대량의 포격과 함께 전차를 동반한 보병공격을 시작하였다. 3월 2일 중국군은 랑손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야만적인 전투를 치러야 했다. 중국군은 3일 동안에 걸쳐 모든 집, 병커, 그리고 터널을 뒤져 민병을 색출하였다. 신화통신은 3월 3일 랑손을 함락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실제 전투는 3월 5일까지 계속되었다. 3월 5일 랑손을 점령한 직후 중국정부는 일방적으로 중국군의 베트남 철수를 선언하였으며, 이후 2주간에 걸쳐 베트남에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전쟁에서 중국군의 전사자는 25,000명에 달하였다. 비록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은 무모할 정도로 용감한 공격력을 보여주었다. 전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중대공격이 실패할 경우 '인해전술'식의 대대공격을 감행하였고, 그 결과 최초 목표였던 5개의 도시를 점령할 수 있었다. 특히 중국군은 적 고정진지에 대해 포병화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제한된 군수지원 속에서 포병은 베트남군에 2만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하도록 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⁵⁶⁾

중국의 공격에 대해 소련은 여러 척의 함정을 파견하였으며,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공수하여 베트남군을 지원하였다. 1979년 2월 22일 하노이 주재 소련무관 트랄코프(N. A. Trarkov) 대령은 소련이 베트남과의 조약을 발동하여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련 측의 그러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소련 외교관들은 전쟁이 제한될 경우 소련은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소련은 베트남을 위해 전면전을 감수할 의도가 없었던 것이다.⁵⁷⁾

56) Henry J. Kenny, "Vietnamese Perceptions of the 1979 War with China", p. 231.

57) Bruce A. Elleman, *Modern Chinese Warfare, 1795-1989*, p. 292.

(3) 전쟁의 결과

중월전쟁의 결과 어느 국가가 승리하였는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전쟁기간이 짧았고 양국군 간의 결정적인 전투 또는 전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결정적인 국면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철수를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군은 랑손을 비롯한 5개의 도시를 점령함으로써 소기의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이후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로 진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베트남-소련 간의 동맹에도 불구하고 '뗏대로 행동하던' 베트남에 공격을 가해 손을 봐 준 것은 나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전쟁을 통해 캄보디아 내 베트남군의 철군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⁵⁸⁾

한편 베트남은 이 전쟁에서 방어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경험한 베트남 민병과 정규군은 일사불란한 작전을 펼쳤으며, 공격하는 중국군에 많은 손실을 가하여 조기철군을 강요하였다. 만일 중국군이 랑손에서 계속 공격해 왔더라면 베트남은 5개의 정예사단을 투입하였을 것이며, 캄보디아로부터 이동하고 있던 3만 명의 정규군 병력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경지역으로부터 랑손까지는 20km에 불과하지만 랑손에서 적강 삼각주까지는 그 두 배인 약 40km에 달하며, 이 경로의 지형은 매복에 용이한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어 베트남군은 비정규전을 통해 중국군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⁵⁹⁾

중월전쟁에서 소련의 불개입은 베트남에 대한 소련의 안보공약에 심각한 의문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었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사시 소련의 군사적 개입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베트남의 전략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소련의 중월전쟁

58) Bruce A. Elleman, *Modern Chinese Warfare, 1795-1989*, p. 297.

59) Henry J. Kenny, "Vietnamese Perceptions of the 1979 War with China", p. 230.

개입 거부는 소련의 권력이 이미 약화되어 양면전쟁을 치를 여력이 없으며, 더 이상 중국과 대규모 전쟁을 수행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즉 중국은 베트남과의 전쟁을 통해 베트남-소련 안보동맹에 타격을 가할 수 있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배가되었을 군사적 압력을 완화하고 미래의 전쟁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요약하면 중국은 중월전쟁을 통해 군사적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다만 정치적으로 베트남의 일방적 행동에 대한 응징을 가함으로써 ‘교훈’을 주고 소련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특히 베트남과 소련의 동맹을 약화시킴으로써 중국에 대한 위협을 약화시킬 수 있었다. 중국은 이같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판단에서 완전한 군사적 승리를 달성하기 이전에 일방적으로 철군을 단행하였다.

5. 결 론 : 현대 중국 전략문화의 특성

중국이 역사적으로 유교사상에 입각한 공자-맹자 전략문화를 갖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현대에도 중국은 한국전쟁, 중인전쟁, 그리고 중월전쟁에서 군사력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동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력 사용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국의 전략적 행동은 외형적으로 전통적인 공자-맹자 패러다임에 부합한 반면, 과거 중국이 추구했던 중화질서하에서의 전략문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현대 중국은 하나의 제국으로서 주변 약소국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강한 적을 상대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해야 했으며, 따라서 현대 중국의 전략적 행동은 비록 전통적 전략문화의 연속선상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현실주의적 전쟁추구 패러다임이 가미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현대 중국의 전략문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정학적 역학관계의 불리한 변화가 중국의 전략적 선택을 지배할 수 있다. 1950년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은 북한지역이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1962년 중인전쟁은 악사이친(Aksai Chin) 지역의 확보와 함께 인도-미국-소련의 반중연대 결성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이 인도를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다. 중월전쟁도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적대화는 중국의 지정학적 안보의 취약성을 자극하였고, 이는 중국의 베트남 공격을 야기하였다. 지정학적 역학관계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서구와 비교할 때 훨씬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과거 주변 유목민족의 침입을 경험한 역사와도 일치한다. 특히 냉전기 11개 국가와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던 중국으로서는 주변지역의 적성화 또는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력 약화에 대해 적극 개입하고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중국은 현대 전쟁에서 제한전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중국내전과 같은 혁명전쟁에서는 전쟁의 성격상 ‘무조건 승리’라는 절대적 목표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이후의 전쟁은 혁명전쟁이 아닌 국제전으로서 클라우제비츠가 제기한 바와 같이 ‘적의 타도’를 위한 절대전이 아닌 ‘다른 조건하의 평화’를 지향하는 - 즉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 제한전쟁을 추구하였다. 그런데 현대 중국의 제한전쟁은 서구의 제한전쟁 개념과 다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중국의 제한전쟁은 특별히 상대적으로 약한 국력을 고려한 현실정치적 선택인 것이다. 중국의 주적은 한국전쟁에서 미국, 그리고 중월전쟁에서는 소련이었으며, 이들과의 전면전 또는 확전을 피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전쟁기간과 규모를 제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반해 서구의 제한전은 국가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 혹은 나폴레옹시대와 같이 대등하지 않더라도 세력균형에 의해 대등한 행위자들 간에 치러진 전면적 전쟁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한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지구전보다는 신속결전을 추구하는 경향

이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전쟁수행 전략은 인민전쟁 또는 지구전 개념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는 대전 또는 전면전을 가정한 전략일 뿐, 주변국과의 제한전쟁에서는 조기결전을 통해 신속하게 전쟁을 끝내려 하였다. 중국은 한국전쟁에 개입하여 -비록 개입 전에는 지구전을 계획하였지만- 제1차 전역에서부터 제3차 전역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결전을 추구하였다. 중인전쟁에서는 전격적인 기습을 통해 중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지역까지 진격한 후 전략적으로 중요한 서부국경의 악사이친 지역은 확보한 채 동부국경 지역은 최초 대치하고 있던 맥마흔 라인으로 철수하였다. 중월전쟁에서도 비록 성공적인 군사작전은 아니었지만 국경지역의 주요 도시에 대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공격을 통해 신속하게 전쟁을 종결하려 하였다. 이는 강대국의 군사개입 이전에 신속하게 군사적 목표를 장악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속결전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넷째, 정치에 대한 군사적 중속이 두드러진다. 즉 정치적 목적이 군사목표와 군사력 사용의 범위를 결정한다. 북한지역 완충지대를 확보하려던 한국전쟁, 악사이친 지역을 확보하고 인도-소련 관계에 쐐기를 박으려던 중인전쟁, 그리고 베트남에 교훈을 주고 베트남-소련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중월전쟁 모두 중국의 군사적 행동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정되어 이루어졌다. 특히 중월전쟁에서 중국은 군사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철군을 단행함으로써 전쟁에서 군사적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가시적으로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하고, 전쟁의 성과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서구의 전략문화와는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전략을 군사적 차원뿐 아니라 정치적 차원으로 확대하였다. 인민전쟁은 군사적 약함을 정치적 차원에서의 전략으로 보완한다는 개념이다. 인민의 정치적 교화와 토지혁명의 추진, 소자본가 및 민족자본가 계급과의 연대를 통한 세력형성, 그리고 항일전쟁을 통한 민족의식 주입 등은 마오

쩌둥의 전략이 단순히 군사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전쟁 시 국내적으로 인민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한 것도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구하기 위한 조치였다. 비록 중월전쟁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덩샤오핑이 미국과 일본을 순방하면서 베트남 공격의 당위성을 호소하고 소련의 군사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모습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현대 중국의 전략이 전통적인 공자-맹자적 전략문화의 연속선상에 놓여있다고 본다. 그러나 마오쩌둥 이후 현대 중국은 그들이 당면한 힘의 열세와 안보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현실에 부합한 전략적 선택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전쟁추구 패러다임에 가까운 전략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현대 중국의 전략문화는 '제국의 전략'이 아닌 '약자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9. 11. 17, 심사수정일 : 2010. 1. 13, 게재확정일 : 2010. 2. 9)

주제어 : 전략문화, 전쟁수행, 공자-맹자패러다임, 전쟁수행패러다임, 국공내전, 중월전쟁, 인민전쟁, 지구전

<ABSTRACT>

Strategic Culture of the Modern China and Way of War

Park, Chang-hee

This research deals with what strategic culture of modern China has been and how it has been reflected in contemporary wars. Firstly, I will review current debates on Chinese strategic culture and suggest some points to analyse Chinese strategic culture. Next, I will examine *Mao Tse-dung's* strategy and the Chinese Civil War to figure out the origin of modern China's strategy. Then, the Sino-Vietnamese War in 1979 which was the most recent war of China will be studied as a case to prove the validity of those hypotheses suggested. It would be undeniable that China has had the strategic culture of *Confucian-Mencius Paradigm* which was based on Confucianism. China has shown its tendency to limit the use of force and consider war as a last resort in the Korean War, the Sino-India War, and the Sino-Vietnamese War. And, China has regarded the use of force as a means to achieve political purpose. However, while those strategic behaviors are totally consistent with *Confucian-Mencius Paradigm* in appearance, they seem to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context with the strategic culture of the past Chinese empire. That is, the Modern China's Strategy has been *the Weaker's Strategy* to counter the stronger enemies like the US and the Soviet Union, not *the Empire's Strategy* to deal with the weak neighboring states. China's strategy, therefore, even though it has continuity of traditional strategic culture of Confucianism, can be best understood as mixed

with the realistic *Para-bellum Paradigm* to overcome its vulnerability of weakness.

Key Words : Strategic Culture, Way of War, *Confucian-Mencius Paradigm*, *Para-bellum Paradigm*, The Chinese Civil War, The Sino-Vietnamese War, People's War, Protracted War